

# 금호타이어 노사 경영정상화 상생 찾아라

노조 새 집행부 17일 선거...노조원 선택 주목  
해의 영업망 붕괴·시장환경 악화 오더 부족  
공장 가동률 62%로 톱 떨어져...역대 최저

금호타이어 공장 가동률이 62% 수준까지 떨어졌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는 해의 영업망 붕괴와 글로벌 시장환경 악화에 따른 오더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노사 특별합의에도 노동조합 내부 헤게모니 다툼으로 인력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생산 효율성 저하도 다른 원인으로 지적된다. 9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해외자본 유치로 기사회생했지만, 경영 정상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업 오더 부족으로 지난 3월 공장 가동률이 역대 최저치인 62% 수준까지 떨어졌다.

영업망 붕괴에 따른 오더 부족, 공장 가동률 저하, 글로벌 시장환경 악화가 겹치면서 금호타이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생산 효율성 궤해 이를 돌파하고자 했다. 생산운영계획을 조정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화한다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자신들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갑자기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조기 선거에 들어갔다. 사측 파트너인 노조 측이 사라진 것이다. 생산 효율화를 꾀하던 사측은 손발이 묶이면서 경영 악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 같

은 비상 상황은 노조 선거가 끝나고 새 집행부가 안착할 때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오는 17일 새 집행부를 뽑는다. 광주대표지회장·수석부지회장·사무국장과 곡성 지회장·사무국장 등 집행부 5명을 선출한다. 새 집행부 임기는 2년이다. 지난 8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노조 내 4개 사조직(민노회, 노동과희망, 민사회, 현장의힘)에서 각각 후보를 내 4파전이다. 한 노조원은 "회사가 처한 위기 상황과는 무관하게 후보자들이 난립했다"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후보가 난립하면서 선거 이후 후폭풍도 예상된다. 노조 내부 화합과 노사간 합리적인 협력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해 4월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 특별합의'를 통해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되면서 "2017년부터 3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임금 동결과 무파업 선언이었다. 하지만, 올해 초 노사가 잠정 합의한 단체교섭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노조 선거가 조기 실시된다는 점에서 노조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의 생존과 미래 존속의 향방은 노사관계에 달려 있다"며 "회사 상황을 이해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노조 집행부가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코스피 2102.01 (-66.00) | ↓ 금리(국고채 3년) 1.71 (-0.01)  |
| ↓ 코스닥 724.22 (-21.15)  | ↑ 환율(USD) 1179.80 (+10.40) |

## 코스피 미·중 무역전쟁 공포에 급락

7개월만에 최대 낙폭  
2102.01에 거래 마쳐

코스피가 9일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공포감에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6.00포인트(3.04%) 내린 2102.01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15일의 2097.18 이후 약 6달 만에 최저 수준이다. 특히 하루 낙폭과 하락률은 지난해 10월 11일(98.94포인트·4.44%) 이후 약 7개월 만의 최대를 기록해 투자자들에게 검은 10월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8.22포인트(0.38%) 낮은 2159.79로 시작해 시간이 흐르면서 낙폭을 키웠다. 이영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우려가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한 가운데 최근 '사자'를 이어온



## 한전-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 '공용충전기 이용 협약'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9일 오후 제주 국제전기차 엑스포 행사장에서 4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와 '한전 공용충전기 제공 및 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준호 한전 에너지 신사업부장, 정민교 대영채비(주) 대표, 박용희 (주)스프리트 대표, 유동수 (주)에버온 대표, 한찬희 (주)파워큐브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은 공용 충전인프라를 충전사업자에게 개방하고, 충전사업자는 한전의 충전인프라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한전 공용충전기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기존 3개

## 김형환 광주국세청장, 근로·자녀장려금 현장 직원 격려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왼쪽 두번째)이 9일 오후 광주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9일 광주세무서, 서광주세무서, 나주세무서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장구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신청장구를 찾는 방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 확대된 제도로 인해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근로장려금 지원 신청대상이 지난해보다 24만9000 가구(88.6%) 증가한 65만 7000 가구에 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지난 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33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은 5월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김형환 청장은 "수급 대상자가 빠짐 없이 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보해 복분자주 벨기에·네팔 간다

프랑스 이어 두번째 유럽 진출  
네팔 복분자·임새주 3만병 수출

'보해 복분자주' (사진)가 올해 벨기에와 네팔 시장에 진출한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9일 "보해 대표 제품인 복분자주 5000본이 올해 벨기에로 수출되고 오는 6월에는 네팔 수출을 위해 복분자주와 임새주 3만본이 선적된다"고 밝혔다.

보해 복분자주의 유럽 수출은 지난 2007년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다. 수출인 전문업체 신라커머스를 통해 벨기에 시장에 진출하는 보해는 매취순과 임새주 등 주요 제품과 함께 유럽 소비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앞서 지난 달에는 네팔 수출업체인 대창식품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해 복분자주와 임새주 등 3만본을 수출하기로 했다. 히말라야를 찾는 한국인 트레킹 관광객이 꾸준히 늘면서 한국 소주와 막걸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다는 것이 보해 측 설명이다. 보해는 트레킹 관광객이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다는 것이 보해 측 설명이다. 보해는 트레킹 관광객이

네팔에 한 달 이상 체류하는 집에 착안해 복분자주와 임새주, 순회 막걸리 등 폭넓은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찬승 보해 홍보팀장은 "보해 복분자주가 프랑스에서 '코리아 남버온 와인'으로 알려지면서 벨기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졌고 이는 수출로 이어지게 됐다"며 "현재 독일과 영국 등 10여개 국가와 제품 수출을 협의하고 있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해 복분자주는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2019몬터레이 국제 와인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해 '한국 대표 와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